

노년은 인생의 비극인가: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를 중심으로

장미성*

【요약】

노년은 인생의 비극인가? 흔히들 노년에는 활동을 할 수 없고, 몸이 쇠약하며, 쾌락을 잇아가며 죽음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등의 불평을 한다. 이런 불평들에 대해 키케로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노년에도 정치 활동과 정신 활동을 할 수 있고 농사일도 할 수 있다. 체력 저하는 절제 있는 생활로 늦출 수 있으며 정신활동을 늘림으로써 체력에서 잃은 것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구 감퇴는 오히려 노년의 큰 축복이다. 그래야만 정신이 제대로 계발되며 쾌락이 기준이 아니라 정신적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노인뿐 아니라 모든 시기에 다 느낄 수 있다. 노인은 젊은이가 바라는 것, 즉 장수를 누렸다는 점에서 젊은이보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의 작품을 중심으로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노년의 문제점들이 ‘나이듦’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덕의 부재’ 때문인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노년에 쾌락이나 신체적 능력은 저하되더라도 덕을 통한 마음의 평정과 지적 행복을 유지하면서 인생의 최상의 단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논의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키케로가 어떤 의도로 노년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지, 이런 키케로의 주장이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한국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언을 해 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이다.

【주제어】 노년, 키케로, 『노년에 관하여』, 행복, 덕, 쾌락, 죽음

*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3044168).

<https://doi.org/10.34162/hefins.2021..26.001>

나는 늙어가노라. 늘 많은 가르침들을 받으면서
gēraskō aiei polla didaskomenos¹⁾

I. 들어가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 속도보다 빠른 노인 혐오’나 ‘노화공포증’까지 등장하면서, ‘디지털 까막눈’의 노년층은 사회에서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4차 산업 혁명의 흐름 속에서 노인들은 그저 존재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이런 상황은 오늘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헤시오도스는 『일과 날』에서 판도라의 항아리 안에 죽음의 운명을 가져다주는 병을 심어, 이 항아리가 열린 이후 인간은 재앙 속에서 갑자기 늙어 버렸다고 설명했다(90-94). 올림푸스 신들도 노인 신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나이든 신은 포악하고 타락했으며, 젊은 신들에게 왕위를 뺏기거나 죽임을 당하는 등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었다.

기원전 6세기 초 그리스 시인 밌네르모스는 침울하고 감상적인 자기 연민과 함께 세월의 흐름, 젊은 시절의 즐거움의 상실, 그리고 노년의 지겨움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고,²⁾ 희극작가이자 철학적 함의를 담은 작품을 쓴 아리스토파네스도 자신의 작품에서 노인들을 희화화 했다.³⁾ 이후 로마 연극, 특히

1) Solon, Fragment 18. (Edmonds ed. and trs.); 『라케스』 189a5; 『국가』 536d; 키케로 『노년에 관하여』50에도 인용되었다.

2) 밌네르모스Mimnermos fr. 1. (Edmonds ed. and trs.)

3) 아리스토파네스는 『별』이라는 작품에서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다 결국 아버지를 집 안에 감금하는 아들 브텔뤼클레온을 무대 위로 불러낸다. 아들과 아버지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 필로클레온은 극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내가 내 재산을 마음대로 못해. 난 아직 어려서 엄청난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내 아들 녀석은 한눈 팔지 않고 노상 나를 지키고

플라우투스의 희곡에서도 노년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특징들이 강조되었는데, 성교불능이면서도 성에 관심을 갖는 늙은 남성과 마녀, 알코올 중독자와 같이 악의적으로 표현된 늙은 여성이 그 주인공들이었다. 서기 6세기 막시미아누스가 쓴 노년과 사랑에 관한 6편의 비가에서도 여성 혐오적 태도가 주를 이룬다.⁴⁾

문학뿐 아니라 철학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크세노폰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6.8.에서 70세의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다이몬도 죽음에 대하여 어떤 확실한 방어책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라고 고백한다.⁵⁾ 아리스토텔레스도 『수사학』 2.13에서 “노인은 오랜 세월을 살며 종종 속임을 당하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뿐더러 인생 전체가 실패작이라 그 어떤 것에도 자신감이 없고 매사에 지나치게 활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에서 노년의 정체성은 부정적이며 혐오의 대상이었을까?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추구하는 행복은 노년에는 불가능하며, 노년은 인생의 비극이란 말인가?

오늘날을 100세 시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고대의 여러 문헌들에 따르면, 먼 옛날에는 오히려 더 환상적인 수명을 누렸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학에서는 300세 혹은 500세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유대교의 역사서인 구약에서는 거의 1000세까지도 살았던 므두셀라가 등장한다.⁶⁾ 그러나 그리스 신화의 새벽의

있고, 성품이 비열할 뿐더러 세상에 들도 없는 자린고비아”(1354-9). 그는 『부의 신』에서 노인들의 신체적 추함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뤼시스트라테』에서도 노인들을 조롱한다. 조르주 미누아, 박규현·김소라 역 (2010), pp. 116-117 참고하라.

4) 이런 주제에 관해서는 Richardson (1933)과 Balsdon (1969), p.169 이하, p. 392 이하를 참조하라. 또한 조르주 미누아, 박규현·김소라 역 (2010)은 제4장에서 로마의 가부장들이 왕정과 공화정에서 가졌던 과도한 권력으로 인해 남자 노인들에 대한 증오심이 증폭되었는데, 로마 희극과 문학이 이런 상황을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5) 이런 생각은 『소크라테스 회상』 4.8.1.에도 등장한다.

6) 정확한 기록은 969년이다. 창세기 5:27.

여신 에오스와 트로이의 왕자 티토노스 이야기에서처럼, 우리가 원하는 삶은 무병장수나 끝이 없는 불사의 삶이 아니라, 늙지 않는 영원한 삶agelessness으로, 노인은 결코 행복의 문턱에도 다가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⁷⁾ 또한 노인들은 활동과 쾌락이 감소되고, 신체적 쇠약과 질병의 문제로 고민한다. 그리고 압박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으로 잠을 이루기 힘들다. 더 나아가 노인 부양, 황혼 이혼, 노인 혐오와 학대, 독거노인, 노인 고독사와 자살문제 등 노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끝이 없다.

사실 노년의 문제 중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은퇴 이후 빈곤의 문제일 것이다.⁸⁾ 하지만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철학자들은 빈곤의 문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 1권에서 엄청난 부자인 케팔로스 노인을 등장시켜 경제적 빈곤 문제를 제외시켰고,⁹⁾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

7) 『호메로스찬가』 *Aph.* 218ff에서 에오스는 티토노스와 사랑을 나눈 다음에 그를 항상 곁에 두고 싶어서 제우스에게 티토노스의 불사를 간청했다. 결국 제우스의 허락으로 티토노스는 불사의 몸이 되지만, 동시에 영원히 늙어가게 되었다. 티토노스는 점점 늙고 쪼그라들어서 결국에는 목소리만 남게 되었고, 마침내 에오스는 티토노스를 매미로 만들어버렸다고 한다. 비슷한 신화로 아폴론의 애인이자 예언가였던 시빌라는 아폴론에게 손에 가득 모래를 주워 담고 그 모래 수만큼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폴론은 애인의 요청을 들어주어 그녀는 아주 오래 오래 살 수 있었지만, 짧게 사는 것을 요청하지 못한 까닭에 시빌라는 나이가 들면서 쪼그라들어 병에 들어갈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병 속에 갇혀 목소리만 남은 시빌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고 싶다고 말한다. Faulkner, A. (2008)

8) 이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학뿐 아니라 공적 연금의 대대적 확대를 위한 ‘큰정부’ 출현에 관한 정치 공방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누스 바움·레브모어, 안진이 역 (2018), pp. 357-378, 7장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에 관하여>에서 솔 레브모어가 다루고 있다. 그는 노인 빈곤 문제는 단순한 부의 이전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세대 간 갈등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에 상당한 액수의 강제저축을 결합하여 ‘삶의 질 급여Livable benefit’를 만들자고 주장한다.

9) 사실 『국가』 329e-331b에서 소크라테스는 케팔로스에게 “노년을 수월하게 보내는 이유가 많은 재산을 가진 덕분”이라고 말하면서 재산의 덕이 무엇인지를 물었는데, 케팔로스는 재산이 있으면 남을 속이지도 않고 신께 제사를 빚짓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더 이상의 재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바로 빚짓는 것에 관한 정의의 문제로 주제를 바꾸고 있다.

마코스 윤리학』 1권 5장에서 행복과 삶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면서, 돈을 추구하는 삶은 강제적 삶이며 노예적이라고 하여 아예 행복의 논의에서 제외시켜 버렸다.¹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노년의 신체적 질병의 문제와, 활동과 쾌락의 감소, 사회적 지위의 하락,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중심으로 노년이 인생의 비극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문제들은 키케로가 『노년에 관하여』의 작품을 통해 거론한 것들로, 거기서 비극적 노년의 이미지는 반전을 이루게 된다. 키케로는 노년이 인생의 비극이 아닌 행복한 시기라고까지 주장한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키케로는 노년의 행복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

본문 II에서는 키케로 이전에 논의되었던 노년에 대한 설명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면서, 키케로가 선현들의 어떤 생각들에 기초해서 노년의 행복을 주장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본문 III에서는 『노년에 관하여』에서 키케로가 노년의 문제들을 어떻게 반박하는지 살펴보면서, 노년의 문제들이 ‘나이 들’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덕의 부재’ 때문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키케로의 주장처럼 노년기에 신체적 기능의 저하와 쾌락의 저하에 상관없이 지적 행복을 유지하면서 인생 최고의 단계가 가능한지 고려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키케로의 이런 주장의 의도는 무엇이며, 이런 주장이 오늘날 고령사회에 어떤 조언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것이다.

II. 키케로 이전에 노년에 관한 설명들

누스바움에 따르면 노년에 관한 작품을 쓴 철학자는 로마 시대 키케로와

10) 행복과 관련된 삶의 유형은 대중들이 추구하는 향락적인 삶, 교양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삶, 그리고 최고의 삶인 관조적 삶이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는 달리 외적 좋음으로서의 돈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돈은 수단적 가치만을 가지기 때문에 돈에 관한 이야기는 별로 언급되지 않는다(1099a33-1099b8).

현대의 시몬느 드 보부아르뿐이다.¹¹⁾ 특이한 것은 두 철학자의 관점이 상반된다는 점이다. 시몬느 드 보부아르는 『노년』에서 아주 현실적인 노년의 비극적 모습을 언급한 반면,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에서 노년이란 인생의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긍정적인 노년의 모습을 그린다. 하지만 누스바움의 극찬한 노년에 관한 유일무이하다던 키케로의 이 작품은 사실 선현들의 작품에 기초해 있다.¹²⁾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소론집 Parva Naturalia』에서 『수명의 길고 짧음에 관하여 De longitudine et brevitate vitae』 『젊음과 노년에 관하여 De inventute et senectutu』를 썼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뒤를 이은 소요학파의 주장 테오프라스토스는 『노년에 관하여』를 기록했다. 아마도 이 작품이 키케로에게 영향을 주었을 텐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확인 할 길은 없다. 이뿐 아니라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에 따르면 파이돈의 『안티마코스 또는 노인들』, 플레곤의 『수명에 관한 책』, 팔레론의 데메트리오스의 『노년에 관하여』 등 노년에 관한 작품들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¹³⁾ 현존하는 작품은 키케로의 작품이 전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키케로의 작품에서 노년에 대한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을 모두 음미해야 한다.

고대 그리스에 최초로 등장하는 노인의 모습은 호메로스 『일리아스』의 네스토르이다. 그는 지혜의 대명사로, 전쟁과 같은 국가적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사로 등장했다.¹⁴⁾ 아테네인들에게 노인은 지혜자이자 철학자와 동일

11) 누스바움은 서양철학사에서 『노년에 관하여』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노년에 관한 주제에 대해 이렇게 훌륭한 철학서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하면서, 반면 시몬느 드 보부아르의 노년에 관한 저서에 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누스바움·레브모어, 안진이 역 (2018), p. 45, 특히 각주 14를 참고하라.

12) 학자들은 키케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금은 유실된 대화편들,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철학자들, 그리고 Heraclides Ponticus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평가한다. Powell (1988), p. 6. 특히 각주 20을 참고하라.

13) Diogenes Laertius (2013), 5. 42-50.

14) 3세대를 살았다고 하는 현명한 네스토르는 분노로 참전을 안 하고 있는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아가멤논의 사죄와 선물을 전달할 사절단으로 오

시되었다.¹⁵⁾ 이런 이유로 로마의 법률가 칼리스트라투스는 “노인은 우리나라에서 언제나 존경받았다”라고 기록했다.¹⁶⁾ 이와 같이 먼 옛날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지혜 있는 노인들은 크게 존경받고 정치, 종교, 문화, 사회 영역에서 최고의 권위를 누렸던 것처럼 보인다. 고대인들은 지혜와 지식이 삶의 연륜과 경험에 비례한다고 생각했고, 노인들은 지혜자로서 항상 존경의 대상이었던 것이다.¹⁷⁾

그렇다면 플라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플라톤은 『티마이오스』 81b-c에서 노화 현상에 관해 자세히 기록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 진행 속도는 사람들마다 다르다. 유전적 차이와 사회적 상황, 문화적 환경 등이 생물학적 신체적 변화를 느리게도, 빠르게도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화는 근본적으로 생물학적 현상이며, 인간의 수명은 한정되어 있다. 인간은 자신의 외부에 있는 무수한 입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마모를 겪게 된다. 입자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반대로 몸 안의 입자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면서 몸 안의 원소들은 비움과 채움의 신진대사 과정을 반복한다. 이때 밖에서 흘러 들어오는 것보다 안에서 더 많이 나갈 때 우리 몸은 쇠퇴하고 더 적게 나갈 때 성장한다고 플라톤은

뒷세우스, 포이닉스, 아이아스를 뽑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15) 아테네 시민들 역시 스스로를 현명한 노인으로 표현했다. 아테네의 가장 유명한 입법자인 솔론은 100세를 살았다고 전해지고, 최초의 자연철학자인 탈레스도 거의 100세를 살았다고 여겨졌고, 피타고라스도 117세까지,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도 80세 이상 산 것으로 보이며, 실상 아테네인에게 노인은 철학자로 생각되었다.

16) Digest of Roman Law 50. 6. 6 pref.

17) 물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다. 어쨌든 노인들은 지혜자로서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진 못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소피스트의 등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소피스트들은 소피아(sophia) (지혜)라는 이름의 기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을 지혜자로 부르며, 비싼 수업료를 받고 아테네인들에게 모든 지식을 가르쳤다. 당시 아테네 민주정에서는 말이 무기였으며, 대중들의 설득을 통해 정치가가 되거나 재판에서 이기기도 했기 때문에, 노인이 아니라도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소피스트의 등장은 그 당시 많은 파문을 일으켰을 것이다.

설명한다.¹⁸⁾

생물체가 젊다는 것은 갖 제작되어 나온 물건처럼 우리 안의 요소들이 골수에서 갖 생성되었고 젖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요소들을 가지고(이 대화편에서는 삼각형으로 설명하고 있다) 더 오래되고 약한 것들을 쪼개어 지배하게 되고, 다수의 닳은 요소들을 가지고 생물을 양육함으로써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노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반면에 몸의 요소들이 다른 요소들과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싸움들을 치러 내느라 그 뿌리가 느슨해지면, 이것들은 양분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더 이상 자신들과 닳은 것들로 쪼개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밖에서 다가드는 것들에 의해 손쉽게 분해되고 말지요. 그 속에서 압도되는 생물은 사실상 전반적으로 쇠퇴를 겪는데, ‘노년’이란 바로 이런 사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수와 관련된 삼각형들을 묶어 주던 끈들이 노고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풀리면, 그것들은 다시 혼의 끈들을 놓아 주게 되지요. 하지만 자연스럽게 풀려난 혼은 즐겁게 날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연에 반하는 모든 것은 고통스러운 반면,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즐겁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도 실로 같은 것이어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죽음은 고통스럽고 강제적인 반면, 노령과 더불어 본성에 따른 임종은 죽음들 가운데서도 가장 고통이 덜하며, 괴로움보다는 즐거움이 더 많이 따르는 것이지요.¹⁹⁾

플라톤의 이 설명에 따르면, 자연에 따르는 죽음만이 즐거운 죽음이다. 젊어서 죽거나 병으로 죽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나이 들어 자연스럽게 죽는 죽음이야말로 행복의 조건일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노인만이 이런 즐거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자연학 소론집』 중 『수명의 길고 짧음에 관하여』에서

18) 물론 이 입장은 플라톤의 것이라기보다 동시대 의학 지식을 따랐던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몸을 영혼에 종속시키고 영혼을 궁극적인 목적으로서의 신성과 동일시함으로써 철학자임을 유지한다(『티마이오스』 90c).

19) 『티마이오스』 81d-e (김유석의 번역).

왜 어떤 유類가 다른 유보다 더 오래 사는지, 즉 사람보다 말 보다 왜 오래 사는지, 왜 같은 종인 인간에서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오래 사는지, 또한 더운 곳에 사는 인간들이 대체로 추운 곳에 사는 인간들보다 더 오래 사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따뜻함과 습기를 성장과 생명의 원인으로 보고, 이와 반대되는 마르고 차가운 것이 노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다음 작품인 『젊음과 노년에 관하여』에서는 동물들의 몸을 머리, 가슴, 배로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온의 근원이 되는 심장이 있는 가슴이라고 말한다. 동물들은 모두 타고난 자연적 열을 지니는데, 심장 부분이 차게 되면 모든 것이 파괴되며, 결국 죽음은 열의 소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더 오래 사는데, 남자가 여자보다 열이 더 많고 습기(정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²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작품에서 식물과 동물의 성장과 죽음에 대해 설명하고,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그는 노인에 관한 분석을 여러 통념들을 바탕으로 한 『수사학』에서 더 내 놓는다. 노인들을 우유부단하며 심술궂고, 모든 것을 나쁜 측면에서만 보며, 의심하고, 의기소침하며 좁스럽다고 평가한다. 또한 인색하고 겁쟁이며 지나치게 이기적이다. 또한 파렴치하고 비관적이며 이익의 노예이다. 물론 이런 설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적 분석에 기인하는데, 노인의 이런 성격은 차가움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년이 되면 비겍해지기 마련인데, 겉은 일종의 찬 기운이다.

태어난 아이는 생명을 지탱하는 열이 있는데, 이는 살아가는 동안 점차 없어지게 되면서 늙어가고, 마침내 열이 소멸하면 죽음에 이르는 것이기에, 나이가 들면서 걱정thymos이나 욕구epithymia는 없어지고 분별력phronesis은

20) 『수명의 길고 짧음에 관하여』 466b10-17, 267a31-32, 『동물생성론』 775a13-14, 18-19. Garland (1990), p. 248는 서론의 각주7)에서 언급했던 신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노화개념이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매미는 건조하고, 피도 없고, 몸도 차갑지만, 날카롭고 힘찬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이유로 매미는 최고령의 신화적인 상징이라는 것이다.

늘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²¹⁾ 그렇다면 노인의 괴팍스러운 성격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대로 생물학적 원인에서 기인하는가? 감정이나 욕구가 사라지고, 분별력이 더 늘어난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사려 깊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들은 바로 이 감정과 욕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은 『수사학』이 아닌 다른 작품에 등장한다.

생물학 작품이나 『수사학』과는 달리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행복이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telos으로 최고선이다.²²⁾ 행복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이기에, 한 마리의 제비나, 하루가 봄을 만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행복도 하루나 짧은 시간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²³⁾ 따라서 어린 아이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삶의 마지막인 노년기에 행복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의 끝을 주목해야만 하고, 어떻게 그 끝이 맺어지는지를 보라”고 말한 솔론의 이야기처럼,²⁴⁾ 누가 행복한지 말하기 위해서는

21) 『수사학』 1389b31-32, 『동물 부분론』 650b28ff. 또한 『영혼론』 416a6-9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인에게서 프네우마pneuma가 떠나간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2)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사는 것eu zēn’과 ‘잘 행동하는 것eu prattein’을 행복으로 생각한다(1095a18-19). 고대 그리스어에서 행복이란 단어는 eudaimonia로 이는 ‘잘 well’을 뜻하는 ‘eu’와 수호신(소크라테스가 다이몬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던)을 뜻하는 ‘daimon’의 합성어로, 행복이라는 개념에 ‘신으로부터 오는 축복’, ‘신과 같은’ 뜻이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행복 eudaimonia’이라는 개념은 철학적으로 ‘잘 살고 living well’, ‘잘 행동 doing well’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따라서 몇몇 아리스토텔레스 학자들은 eudaimonia를 감정으로 이해되는 Happiness가 아니라 풍성한 삶을 뜻하는 Flourishing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말로도 행복幸福의 ‘복’의 한자 어원도 역시 복의 뜻이 가지는 두 함축, 곧 사람의 힘을 초월한 운수라는 뜻과 오붓하고 넉넉하다는 뜻의 함축을 풀이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복은 주관적인 것도, 감정에 따른 것도 아닌 활동과 삶에 따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3)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8a18-21, 1100a5.

24) 헤로도토스 『역사』 1. 30-31.

그 사람의 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어느 정도 길고 완결된 시간 안에서,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크고도 고귀한 일들을 성취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해지는 일이 가능할 것이기에,²⁵⁾ 다시 말해서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고, 완전한 생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나 청장년이 아닌 노인만이 진정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노년이야말로 덕과 지혜와 지식,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인생의 최고의 시기가 될 수 있다.²⁶⁾

키케로는 이런 선현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노년의 설명에 대한 대 반전의 드라마를 계획한다. 우선 그는 『노년에 관하여』에서 노인이 된 뒤에도 왕성한 활동을 펼친 많은 사람들을 본보기로 소개한다. 조용하고 우아하게 부드러운 노년을 보낸 막시무스(13), 80세를 살면서 죽는 순간까지 학문에 매진한 플라톤, 99세까지 살면서, 94세 때 가장 유명한 책을 쓴 이소크라테스, 그리고 107세 죽을 때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고르기아스가 그 주인공들이다. 또한 경주에서 승리한 준마를 자신의 노년에 견주는 엔니우스도 65세에 우렁찬 목소리로 법안을 지지했고, 70의 나이에 가장 무겁다는 가난과 노령을 즐기다시피 살았다는 것이다(14).²⁷⁾ 그렇다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지금은 소실되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키케로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고대 노년에 관한 여러 작품을 떠올리면서, 어떤 방식으로 키케로가 노인의 행복을 논의했는지 살펴보자.

25) 『니코마코스 윤리학』 1101a11-13.

26)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과 시간에 관한 논의는 Rabbås and Emilsson and Fossheim eds. (2015) 중 특별히 Fossheim을 참조하라.

27) 스토아 철학자로서 클레안테스는 100세의 나이에 단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칸트는 80세, 벤담은 84세까지, 버틀러트 러셀은 가장 오염이 심한 나라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98세까지 살았다. 그렇다면 왜 다른 직업군과 계층에 비해 철학자는 더 오래 사는 것일까? (누스바움 (2018), pp. 45-6에서 재인용 했다.) 왜 다른 직업군 중에서 철학자들이 오래 사는지 키케로의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재미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키케로가 말하는 노년의 행복

키케로는 『노년에 관하여』를 일종의 대화적 상황의 액자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던 당시 키케로는 사랑하는 딸 툴리아가 세상을 떠나자 심각한 우울증에 빠진 상태였고, 정치적 상황(로마 공화정의 붕괴)도 좋지 않았다. 당시 키케로(62세)와 친구 아티쿠스(65세)는 60대였고(1-3), 실질적 대화는 기원전 150년경(14), 84세 된 카토가 등장하여(32) 죽기 전에 30대 남자 두 명, 스키피오와 라엘리우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으로 쓰여졌다(4-6).²⁸⁾ 30대 청자들은 여전히 정치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카토에게 노년의 삶에 대해 물으면서 노년의 문제점들에 관해 파헤쳐 볼 것을 제시한다. 이런 점에서는 이 작품은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 지인들과 둘러 앉아 대화를 나누는 플라톤의 『파이돈』편을 연상케 한다. 또한 이런 대화 형식은 계속 묻고 답하는 플라톤의 대화편보다는 설명 위주의 대화편으로 쓰여진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 형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²⁹⁾

도입부에서 키케로는 자신의 친구 아티쿠스에게 “지금은 자네를 위해 노년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 옳은 것 같으니”(1)라고 말하지만, 사실 작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토의 조언은 노인들이 아닌 두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다. 청자로 등장한 이 젊은이들은 훌륭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카토에게 자신들도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입장을

28) 마르쿠스 카토 Marcus Porcius Cato Censorius (기원전 234-149)는 소(小) 카토 Cato Maior와는 다른 집정관을 지낸 대(大) 카토로, 평민 집안에 태어나 자수 성가한 정치가이다. 그는 그리스 문화를 로마에 받아들이려는 것에 반대했고, 몇 가지 저술도 남겼다. 스키피오 Publius Cornelius Scipio Aemilianus (기원전 185-129)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자 정치가이며, 라일리우스 Gaius Laelius Sapiens는 스키피오의 친구로 집정관을 지냈고 철학에 조예도 깊었다. 등장 인물에 관한 정보는 키케로, 천병희 역 (2006), p. 181을 참고하라.

29) Cicero, Kelsey and Reid (ed.) (1882), p. 13.

고려해볼 때, 키케로는 자신의 작품의 독자를 노인들뿐만 아니라 훌륭한 노인이 되기를 바라는 젊은이들도 염두에 둔 것처럼 보인다. 키케로는 다음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노년의 문제를 검토한다.

1. 노년엔 신체적 질병으로 고통스러운가?

키케로는 한때 최고의 레슬링 선수였지만 노인이 된 뒤 자신의 늙음에 눈물을 흘렸던 밀론을 언급하며, 노년엔 체력이 저하되고, 몸이 아프다는 최대의 약점에 대해 검토한다. 앞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노화가 질병이 아닌 자연적이고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피타고라스로부터 내려오는 고대 그리스의 전통이다. 피타고라스는 인간의 생애를 소년 20년, 청년 20년, 장년 20년, 노년 20년이라고 보면서, 소년^{pais}은 봄, 청년^{neaniskos}은 여름, 장년^{neaničs}은 가을, 노년^{gerōn}은 겨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³⁰⁾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인생의 생애를 나누면서, 유아기는 성장을 위한 많은 보살핌과 교육이 필요하고, 청년기는 신체적 힘과 저돌적인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노년기에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했는데, 키케로도 소년의 특징은 허약하고, 청년의 특징은 저돌적이고, 장년은 위엄이 있으며, 노년은 원숙하다고 설명한다(33).

따라서 노화는 질병이 아닌 인생의 과정이고, 모든 인생의 단계는 그 앞 단계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체력 저하의 문제는 노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몸으로 태어났는지 타고난 본성의 문제일 수 있고, 이전의 노력의 문제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노년이 되어 기력이 쇠하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젊었을 때 쾌락을 좇은 결과일 수도 있다.³¹⁾ 그렇기 때문에, 키케로는

30) Diogenes Laertius (2013), 8. 10.

31)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례를 든다. 퀴로스는 노인이 되어서도 허약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30),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카토)도 84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자랑한다.

자신의 힘을 적절히 쓰되 최선을 다하면, 체력이 부족하다고 안타까워할 일은 없다고 단언한다(33). 노인이 되어도 적당한 운동과 적당한 식이요법, 절제를 통해 건강과 예전 체력을 상당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²⁾ 오늘날 60세 이후에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이라든지, 70대에 근육대회에 출전하여 상을 거머쥔 노인들을 보면, 키케로의 주장이 그리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은 아닐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체력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더 증강될 수 있다는 정신력인데, 키케로는 황소를 메고 올림피아 경주를 따라 걸었던 밀론과 피타고라스 중 어떤 삶을 원하느냐고 되묻는다.

신체적 질병뿐 아니라, 기억력 감퇴 등 정신적 질병에 관해서도 키케로는 시민들 모두의 이름을 외우는 테미스토클레스와 법률가, 복점관, 철학자의 예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더구나 보물을 숨겨둔 장소를 잊어버리거나 묘비명을 읽으며 고인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면서 평범한 노인들도 기억력 감퇴를 걱정하지 말라고 격려까지 한다. 기억력 훈련에 관해서는 피타고라스의 말을 빌어 “낮에 말하고 듣고 행한 모든 것을 저녁에 마음속에 떠올려 봄”으로써 기억력훈련을 하라는 조언도 아끼지 않고 있다(38). 이와 같이 키케로는 고령에도 최고의 비극을 쓴 소포클레스, 호메로스를 비롯한 시인들, 그리고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자들을 언급하면서, 노년에 더 학구열을 불태우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2. 노년엔 활동을 할 수 없고, 신체적 쾌락도 감소하는가?

키케로는 은퇴 이후 노년의 활동으로 농사 활동과 배움의 활동을 추천한다. 우선 농경 생활은 노년에도 잘 할 수 있고 현인의 삶에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³³⁾ 키케로가 생각하기에 농경은 대지와 의 거래를 하는 것으로,

32) 이런 생각은 히포크라테스학파로부터 유래한다. 『티마이오스』 89b-c, 『법률』 728c를 참조할 것.

33) 카토는 『농경에 관하여 De Agricultura』를 썼는데, 농경에 대한 찬양과 즐거움

결실뿐 아니라 대지의 힘과 본성도 즐긴다고 고백한다(51). 사실 농경의 즐거움은 스토아적 사상이기도 하다. 키케로는 『투스쿨룸대화』 5. 37에서도 우리 모두의 어머니인 자연에서 식물뿐 아니라 동물도 살아간다고 말하여 땅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장하는 농경 생활은 생계를 위한 농사일이라기보다 텃밭을 가꾸는 정도의 정원 일이다. 이런 일을 통해 키케로는 자연의 지배와 본성을 알게 되고(55), 포도 접붙이는 일을 통해 창의력까지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54). 이런 활동이야말로 신들과 후손들을 위해 씨를 뿌리며 다음 세대들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칭송받을 만한 것이다.

학문을 닦고 덕을 실천하는 배움의 활동 역시 노년의 최선의 무기로(9), 오늘날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여러 교육 프로그램 마련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강조되는 것이다. 이 책의 화자인 카토 역시 노년에 그리스어를 배운다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날마다 무엇인가를 더 배우면서 노인이 된다는 솔론의 이야기를 반복한다.

또한 노인이 되면 활동뿐 아니라 신체적 쾌락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에 대해, 키케로는 노년기에 신체적 쾌락이 없다는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라 더 나은 일이라고 결론짓는다. 신체적 쾌락은 플라톤부터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치명적이며, 심지어 악의 뿌리로까지 여겨졌다.³⁴⁾ 여기서 등장한 노년의 쾌락 문제는 플라톤 논의에서 빌려온 것이다.

소포클레스 선생, 성적인 쾌락과 관련해서는 어떠신가요? 선생님께서는

은 크세노폰의 『가정관리 Oeconomicus』에서 처음으로 볼 수 있다(59). 카토의 『농경에 관하여』에 관해 누스바움은 ‘매우 지루한 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밭에 짚을 깔고 쟁기질하는 일에 관해 긴 여담을 늘어놓아 두 청년과 독자들을 지루하게 만든다”고 설명한다. 특히 “거름의 기적적인 효능에 관한 부분은 너무 지겹다”고 까지 말한다. 누스바움·레브모어, 안진이 역 (2018), p. 47.

34) 『파이돈』 69a, 『티마이오스』 69d, 『니코마코스 윤리학』 1152b, 1172a-1173a.

는 아직도 여인과 관계를 가질 수 있으신가요? (……) 췌, 이 사람이! 그것에서 벗어났다는 게 정말 더할 수 없이 기쁜 일이레. 흡사 광포한 어떤 주인한테서 도망쳐 나온 것만 같거든 (……) 노년에 이르러서야 그와 같은 것들에서도 큰 평화와 자유가 완전히 생기게 되니 말입니다.³⁵⁾

우리는 노인 소포클레스와 케팔로스의 이런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무절제한 사람이 기쁨을 느끼는 것은 향락으로, 이것들 모두 촉각을 통해서 일어나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른바 성적인 것에서 일어난다. 이런 이유로 어떤 미식가는 촉각에서 즐거움을 얻는다고 생각해 자신의 목이 학보다 길어지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그렇다면 무절제가 관계하는 감각은 감각들 중 가장 널리 공유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인간인 한에서가 아니라 동물인 한에서 갖는 것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보일 것 같다.³⁶⁾

키케로는 이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이어받고 있는 셈이다. 고대 철학에서 퀴레나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 이외에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육체적 쾌락을 덕이 핵심인 진정한 행복과 구별하려고 했다.³⁷⁾ 심지어 키케로는 자연이 인간에게 준 역병 중에 쾌락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다고 규정한다 (39). 왜냐하면 쾌락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정신의 빛을 완전히 꺼버리기도 하며(41), 이성적 활동을 방해하고,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덕과 함께 가지 않기 때문이다(42).³⁸⁾

35) 『국가』328e-329d (박종현의 번역).

36) 『니코마코스 윤리학』1118a30-1118b2 (강상진 외 번역).

37) 키케로도 『최고선악론』 2.7과 『투스쿨룸대화』 2.7에서 에피쿠로스의 쾌락을 비판하며, 『노년에 관하여』 43에서도 쾌락이 우리 모두 행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에피쿠로스의 입장을 비판한다.

38) 여기서 키케로는 쾌락과 덕을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쾌락에 관한 덕은 절제로 최고의 쾌락은 절제라는 덕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3권과 7권 10권에서 쾌락과 관련된 절제의 덕을

따라서 노년이 되어 신체적 쾌락의 감소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만한 일이며(44), 노인의 쾌락도 따로 존재하는 데, 이는 감각적 쾌락이 아닌 친구들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오는 쾌락(45-46), 그리고 학구열을 불태우거나(50), 농경에서 오는 쾌락(51-61) 등이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키케로는 모든 쾌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식욕이나 성욕에 몰두하고 거기서 쾌락을 찾는 것은 최악의 미끼이겠지만,³⁹⁾ 노년에 학구열에 관한 쾌락과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느끼는 쾌락은 오히려 권장된다.

더 나아가 노인들도 젊은이들만큼의 육체적 쾌락을 누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충분한 쾌락은 느낄 수 있다고 키케로는 강조한다. 이에 대한 예로 공연장 맨 앞줄에 앉아 있는 관객과 뒷줄에 앉아 있는 관객을 비교하며 뒷줄에 앉았어도 앞줄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설명한다(48).⁴⁰⁾ 무엇보다 노년의 가장 큰 쾌락은 한가함에서 나올 것이다. 한가함이란 노동이나 일과는 반대되는 여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은퇴한 노년에게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전쟁의 목적은 평화이며, 노동의 목적은 여가라고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쾌락은 신체적 쾌락을 포함 모든 쾌락의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⁴¹⁾

3. 노인의 지위와 역할은 계속 추락하는가?

키케로는 노년의 지위와 역할을 향해 활동에서의 키잡이와 전쟁터에서의

설명한다. 성격적 덕으로서의 절제는 육체적 쾌락과 결부되는데 이는 측각에서 오는 식욕과 성욕에 관련된 것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집중해서 검토하고 있다.

39) 키케로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 69d를 인용한 것이다(44).

40) 키케로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적 쾌락의 강도는 떨어지지만,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41) 아리스토텔레스의 여가scholê라는 용어는 전체 저작에서 89회 언급되는데, 이중 46회가 『정치학』에서 설명되고, 특별히 시민 교육을 주장하는 7-8권에서 주로 등장한다.

전략가로 비유한다. 키잡이와 전략가는 계획하고 판단하여 명령하는 조연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들로, 몸으로 행동하는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더군다나 키케로는 위대한 나라는 젊은이들의 힘과 열정에 의해 무너지고 전복되었지만, 노인들의 조언과 지혜에 따라 지탱되고 회복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이유로 노년기의 특징을 다시금 분별력과 지혜라고 내세운다(20).⁴²⁾

노인의 이런 역할은 호메로스가 『일리아스』에서 설정한 네스토르의 역할이었다.⁴³⁾ 전쟁에서 나라의 공적인 일을 결정할 때 아이아스 같은 장수 열 명보다 필요한 건 조연자이자 지혜자인 네스토르이며(31) 지혜와 분별력이야말로 더 오래 지속되고 영향력 있는 활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 스파르타에서는 원로원들이 말 그대로 노인들이었고(20), 실례로 노년에도 왕성한 정치력을 행사했던 퀸투스 막시무스, 루키우스 파울루스, 파브리키우스와 쿠리우스, 코롱카니우스, 그리고 압피우스 클라우디우스 등이 있다. 이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정치 활동에 참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나이 많은 법률가, 사제, 신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호메로스과 헤시오도스 등의 시인뿐 아니라 휘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 플라톤, 제논 등의 철학자도 있다(21-25).

이런 키케로의 사상은 플라톤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플라톤은 『국가』 498c에서 기운이 빠지게 되어 정치와 군복무에서 물러서게 되면, 그때는 [철학의 초원에서] 방목 상태로 지내면서, 즉 철학에 종사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또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들의 이상 국가에서 노년기 사람들에게 종교적 직책을 마련해 주었다. 플라톤은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42) 이런 주장은 『일리아스』 3. 108-10, 데모크리토스 fr. 294D-K, 키케로의 『투스쿨룸 대화』 I. 94에도 등장한다.

43) 1. 260; 7. 123-160; 11. 668ff; 23. 629ff.

사제들과 관련된 사한들은 신에게 직접 맡겨서 신을 즐겁게 하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하며, 그래서 신적인 운에 맡기면서 추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첨으로 뽑힌 자는 그때마다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그가 온전한지 그리고 적법하게 태어났는지를 심사받아야 하고, 다음에는 그가 가능한 한 가장 정결한 가정에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그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살인이나 신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모든 잘못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심사 받아야 합니다…각 사제의 임기는 1년이어야 하며 더 길어서는 안 됩니다. 신성한 법률에 따라 신과 관련된 의식을 능히 수행할 사람은 나이가 60세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규는 여자 사제들에게도 적용해야 합니다.⁴⁴⁾

아리스토텔레스도 『정치학』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렇다면 앞서 열거된 것들 가운데 남아 있는 계급은 사제 계급이다. 그들의 조정은 또한 명백하다. 농부도 기술공도 사제로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데, 신들은 시민들에 의해 영예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알맞기 때문이다. 시민체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무기를 지닌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심의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나이 탓에 기력이 쇠잔해진 사람들은 신에게 봉사해야만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제직이 주어져야만 할 것이다.⁴⁵⁾

사실 노인은 활동의 전성기가 지난 사람들로 단적인 의미에서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만 시민으로 불렸다. 은퇴기인 노인들은 자신의 가족을 돌볼 수도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도 관직에 오를 수 없으며, 생산과 공적 의무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 사제직이 적당한데, 이 또한 검토를 거쳐 잘 살아온 사람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로마 사회에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 *officium*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에 걸맞는 명예를 얻는 것이 중요했다. 로마인들은 플라톤이 주장했던 지혜, 용기,

44) 『법률』759b-d (김남두 외 번역).

45) 『정치학』1329a28-34 (김재홍 번역).

절제, 정의의 4주덕뿐 아니라, 신의fides, 결백innocentia, 일관성constantia, 경건pietas, 종교심religio도 로마적 덕목들에 포함시킨다. 이런 덕목들은 정치 생활을 은퇴한 이후에서 마찬가지로 중요했는데, 이 책을 집필하던 45년경, 정치에서 물러난 키케로도 다수의 철학적 저술활동을 하면서 나름의 국가적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미 수사학에서 희랍인들을 능가했다고 자부했으며, 철학 분야에서도 희랍인들에 필적할 업적을 라틴어로 성취하는 것이 조국 로마에 대한 봉사로 여겼고, 이를 통해 로마인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한 임무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노년에도 훌륭한 덕을 발휘하는 노인들은 직접 정치적으로 활약하거나,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수해주거나, 젊은이들에게 모범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여전히 중요한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키케로는 몸소 보여주하고자 했던 것 같다. 오늘날에도 65세 이전에 교육계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다 은퇴하겠지만,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조언해주고 교육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노년 활동에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이라 할 것이다.

4. 노년엔 임박한 죽음으로 인해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는가?

갑자기 쓰러지는 뇌졸중이나 암 투병으로 고통스러운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노인들은 불안과 고통에 떨기 쉬운데, 이는 플라톤의 『국가』 1권 330d-e에 등장하는 케팔로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죽을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전에는 없었던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온다고 고백한다. 하데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예전에는 웃음거리였지만 노년에는 진짜일까 싶어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차 겁에 질린 채로 잠에서 자주 깬다고 토로한다. 비슷한 이유로 노년에는 예전에 없던 종교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고민하며 두려움에 떠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죽음에 대해서는

유물론적 입장과 이원론적 입장이 있다. 영혼이 물체라는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죽음과 더불어 영혼도 소멸되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의 감정 역시 죽음과 동시에 사라진다. 다른 한편으로 소크라테스가 주장한 이원론적 입장에서, 죽음이란 감옥 같은 몸으로부터의 영혼의 해방이기 때문에,⁴⁶⁾ 우리는 죽음을 오히려 기뻐해야만 한다(66-67).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어떤 설명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걱정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키케로 역시 죽음 이후의 영생을 믿었고, 죽는 순간의 고통은 잠시며, 사후에는 그런 고통을 느끼지 않거나 즐거운 것이 되리라고 믿었다(73). 젊었을 때부터 죽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삶의 훈련받는다면, 평온한 마음으로 죽을 수 있으며,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마지못해 죽을 수밖에 없다(83). 화자인 카토는 삶이란 노고이며,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잠시 머물렀던 여인숙을 떠나는 것으로, 죽음 이후 존경했던 부친들을 만난다는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노년은 짐이 아닌 즐거운 일이라고 고백하면서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한다(83-85).

더 나아가 키케로가 강조하고자 한 것은 죽음의 문제가 노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젊은이는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노인은 이미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젊은이보다 노인이 더 행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68). 또한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몇 세를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은 것은 덕과 올바른 행동으로 이룩한 것이며(69), 무대에 역할에 맞게 등장한 배우처럼, 주어진 수명이 짧다고 해도 훌륭하고 명예롭게 살기에는 충분히 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70).

결론적으로 키케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노년에 언급되는 문제들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훈련되어야 할 성격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앞서 말했듯이, 인생의 여러 단계는 연결되어 있으며, 노년기의 행복 역시 청년기와 장년기를 어떻게 보냈는지와 관련이 있기

46) 『소크라테스 변명』 40c, 『투스쿨룸 대화』 1. 25-6.

때문이다. 따라서 노년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 역시 나이의 문제라기보다 인생의 전 단계를 어떻게 보냈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 특히 의미를 지닌다. 100세 시대를 말하며 무병장수만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떠들어 대는 오늘날의 미디어를 보면, 삶의 질적인 면이 아니라 양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가 강조했던 것처럼, 행복은 오래 사는 데 있지 않고 잘 사는 데 있다. 특이한 점은 키케로가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면서 노인을 스산하고 황폐한 겨울이 아닌, 수확의 계절인 가을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 죽음은 자연적인 것이며, 인생에 있어서는 오랜 항해 끝에 항구에 들어서는 배와 같다(71).

결국, 이 작품 속에서 키케로는 노년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여러 성공한 노인들을 대거 출현시킴으로써, 논증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권위로부터의 논증Argument from Authority’으로 설득하고자 한다. 물론 권위로부터의 논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역사적 전제가 언제나 충족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는 로마 시대와 다르며, 키케로 시대에 통용되던 권위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케로는 끊임없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던 선현들을 인생의 모델로 보여줌으로써, 로마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불변의 진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영혼을 돌보는 것이 철학이라고 생각했던 소크라테스처럼 키케로도 영혼의 활동이 신체적 활동보다 더 중요하며, 인생의 단계에 맞는 탁월함을 연마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IV. 나가며

시몬느 드 보부아르는 “노인의 상태는 사회적 정황에 달려 있다”고 결론 내린다. 하지만 키케로를 포함,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철학자들은 노인의 상태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인이 되어 신체적 저하와 쾌락의 저하가 그리고 죽음의 압박함에 따른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온다하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행복은 인간의 최고선이며, 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덕을 쌓기 위해 우리는 인생의 단계 단계를 거쳐 경험과 지식을 쌓고 좋은 습관과 훈련을 통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만이 행복에 도달하는 길이다. 키케로 역시 노년의 최선의 무기란 학문을 닦고 덕을 실천하는 것이며, 오랜 세월 가꾸어온 덕이야말로 노년에 열매를 맺게 되고 훌륭한 삶과 행복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9).

따라서 노년의 신체적 경제적 결핍과 외로움은 진정한 행복과 필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노인 문제는 경제적 빈곤이나 신체적 질병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생산성의 개념에서 인간을 평가하고 신체적 쾌락으로 행복을 바라보다 보니, 은퇴 이후의 노인의 삶을 사회적 기능에서 단절시키고,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행복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노인은 사회가 부양하고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연결 선상에서 여전히 사회에 조연자와 덕의 모델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키케로의 노년에 관한 논의는 노인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으며, 자연스런 삶의 과정인 늙어감을 걱정하고 혐오하거나, 오직 의학적 기술로 젊음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현대인의 시선에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노년의 신체적 쾌락과 건강, 부, 권력과 같은 외적 좋음이 아니라, 철학을 함으로써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며,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것이다. 노년의 진정한 행복이란 훌륭하게 살았다는 의식과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는 기억이기 때문이다(9). 에피쿠로스는 젊으나 늙으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철학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⁴⁷⁾ “운이 좋은 사람은 젊은이가 아니라 일생을 잘 살아온 늙은이로,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는 신념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운수에 이리저리 끌려 방황하지만, 노인은 항구에 정박한 배처럼 느긋하게 행복을 즐긴다”고 주장했다.⁴⁸⁾

그렇다면 우리는 노년이 된 것만으로도 행복에 더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아니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듯이 행복은 어찌 보면 노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일 수 있다. 또한 노년은 인생의 비극이 아닌 신의 축복일 수 있다는 키케로의 주장이 그리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노년에 관하여』에서 키케로는 노년의 행복에 관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논증과 세련된 이론으로 설명하기보다, 삶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훌륭한 노인상을 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키케로가 청자들을 노인뿐 아니라 젊은이들도 염두에 두면서, 잘 살아온 노인들을 모델로서 후대에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내용적으로 연결되는 『우정에 관하여』라는 작품에서도, 『노년에 관하여』에서 카토의 이야기를 들던 젊은이 라일리우스가 죽은 친구 스키피오와의 우정을 사위들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따라서 키케로의 저작의 의도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것과 더불어 훌륭한 노년을 맞이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훌륭한 삶을 살았던 노인들을 기억하며, 젊어서부터 적극적인 활동과 지혜와 절제를 연마하고, 쾌락의 굴레에서 자유롭게, 죽음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훌륭한 노년을 맞을 수 있다고 키케로는 격려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도

47) “누구도 젊어서 철학하기를 미루지 않게 하고, 나이 들어서 철학하기를 지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아무도 영혼의 건강함을 위한 때가 이르거나 늦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철학할 때가 아니라거나 그때가 지났다고 말하는 자는, 행복을 위한 때가 오지 않았거나 더 이상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따라서 젊은이도 나이든 이도 철학해야만 한다.” 에피쿠로스 「메노이케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122.

48) 에피쿠로스의 「단장」 17.

이런 삶을 살았던 노인들을 젊은이들의 삶의 모델로 보여준다면, 노년의 행복에 관한 논의는 교육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누스바움·레브모어 (2017), 안진이 역 (2018),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 서울: 어크로스.
- 시몬느 드 보부아르 (1970), 홍상희·박혜영 역 (2002), 『노년: 나이들의 의미와 그 위대함』, 서울: 책세상.
- 아리스토텔레스, 강상진 외 역 (2011),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길.
_____, 김진성 역 (2015), 『자연학 소론집』, 서울: 이케이북스.
_____, 천병희 역 (2017), 『수사학』, 일산: 도서출판숲.
_____, 김재홍 역 (2017), 『정치학』, 서울: 길.
_____, 오지은 역 (2019), 『영혼론』, 서울: 아카넷.
- 아리스토파네스, 천병희 역 (2010), 『아리스토파네스 희극전집.1』, 일산: 도서출판숲.
- 에피쿠로스, 오유석 역 (1998), 『쾌락』, 서울: 문학과지성사.
- 조르주 미누아 (1987), 박규현·김소라 역 (2010), 『노년의 역사』, 서울: 아모르문디.
- 크세노폰, 오유석 역 (2018), 『소크라테스 회상록 소크라테스 변명』, 서울: 부북스.
- 키케로, 김창성 역 (1999), 『최고선악론』, 파주: 서광사.
_____, 천병희 역 (2006), 『노년에 관하여; 우정에 관하여』, 일산: 도서출판숲.
_____, 김남우 역 (2014), 『투스쿨룸 대화』, 서울: 아카넷.
- 플라톤, 박종현 역 (2005), 『국가』, 파주: 서광사.
_____, 김남두 외 역 (2018), 『법률』, 파주: 나남.
_____, 김유석 역 (2019), 『티마이오스』, 서울: 아카넷.
_____, 전현상 역 (2020), 『파이돈』, 서울: 아카넷.
_____, 한경자 역 (2020), 『라케스』, 서울: 아카넷.
_____, 강철웅 역 (2020), 『소크라테스 변명』, 서울: 아카넷.
- 호메로스, 천병희 역 (2015), 『일리아스』, 일산: 도서출판숲.
- 헤로도토스, 천병희 역 (2009), 『역사』, 일산: 도서출판숲.
- 헤시오도스, 천병희 역 (2009), 『신들의 계보』, 일산: 도서출판숲.

- Translation I. II.*,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 Balsdon, J. P. V. D. (1969), *Life and Leisure in Ancient Rome*, London.
- Cicero, Falconer, W. A. trans. (1923), *De Senectute, De Amicitia, De Divinatione*,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Cicero, Kelsey and Reid, (ed.) (1882), *Cato maior de senectute :with introduction and notes*, South Carolina: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reprinted 2014).
- Diogenes Laertius, Dorandi (ed.) (2013), *Lives of Eminent Philosophers, Cambridge Classical Texts and Commentarie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Edmonds, J. M. (1954), *Elegy and Iambus and with the Anacreontea, Vol. I*,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Fossheim, H. (2015), “Aristotle on Happiness and Old Age,” in Rabbås, Ø. (eds.), *The Quest for the Good Life: Ancient Philosophers on Happiness*, pp. 113-126, OUP Oxford.
- Faulkner, A. (2008), *The Homeric Hymn to Aphrodite : Introduction, Text, and Commentary*, Oxford: Oxford Univ. Press.
- Garland, R. (1990), *The Greek Way of Life*, London: Duckworth.
- Kertzer, D. I. and Laslett, P. (ed.) (1995), *Aging in the Past: Demography, Society, and Old Age*, Berkeley, L. A, London.
- Powell, J. G. F. (ed.) (1988), *Cicero: Cato Maior de Senectut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Plato, Cooper, J. and Hutchinson, D. S. (eds.) (1997), *Plato: Complete Work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
- Rabbås, Ø. and Emilsson, E. K. and Fossheim, H, and Tuominen, M. (eds.) (2015), *The Quest for the Good Life: Ancient Philosophers on Happiness*, OUP Oxford.
- Richardson, B. E. (1933), *Old Age among the Ancient Greeks*, Baltimore: Greenwood Press.

【Abstract】

**Is Old Age a Tragedy in Life?:
A Study on Cicero's *On Old Age***

Jang, Misung

Is old age a tragedy in life? 'Restriction of activities,' 'weakness,' and 'loss of pleasure,' 'the fear of the death,' etc., the main reasons why the old age he suggested looked miserable are the results from physical factors. In response to these complaints, Cicero refutes: In old age, political and mental activities can be carried out and agricultural activities can be also. Aging negatively affects the body, but we can lessen aging's impact through exercise, moderation in food and drink, and by caring for our intellect. Decreasing the desire for sensory pleasure is a great blessing in old age. Only then can the mind be developed properly and pleasure be not the standard, but the mental judgment. In the old age, people can enjoy the pleasures of spiritual activities and farming. Fear of death can be felt at all times, not just for the elderly. Old people are happier than young people so far as they have enjoyed what they want, that is, longevity. This study attempted to discuss view on the problems at old age - whether the cause of these problems is "age" or "lack of virtues." - through *On Old Age* (*Cato maior de senectute*) written by Marcus Tullius Cicero (106-43 B.C.). In addition, we will consider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ven if pleasure or physical ability decreases in old age, it can be the best step in life while maintaining peace of mind and intellectual happiness through virtue. Lastly, we will also examine how Cicero is talking about old-age happiness and what advice these Cicero's arguments can give to solve the problems at old age in Korea today as well as in Greco-Roman Antiquity.

【Keywords】 Old age, Cicero, *On Old Age* (*Cato Maior de Senectute*), Happiness, Virtue, Pleasure, Death

논문 투고일: 2021. 03. 28

심사 완료일: 2021. 04. 22

게재 확정일: 2021. 04. 22